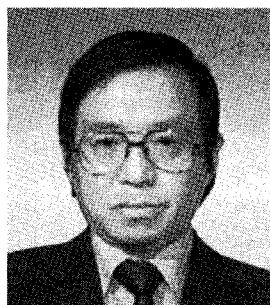


경제발전에 따른 식생활 및 생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도 비만증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비만증은 표준체중[(키(cm)-100)×0.9]의 120% 이상 상회될 때를 말하는데, 이는 외견상 미용문제를 떠나서도 많은 의학적 의미를 갖고있다. 무엇보다도, 비만하면 수명이 감소된다. 비만의 정도와 사망율이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음은 이미 증명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의

비만증의 원인과 증상



최영길

(경희의대·내과)

유해인자가 되며, 폐기능도 저하되고 담석증의 발생빈도도 높아, 결국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고 수명도 단축되게 된다.

비만증의 빈도는 연령 증가에 따라 증가되어 40대에서 50대에 절정을 이루었다가 다시 감소된다. 우리나라의 통계는 없으나 미국의 경우 전체 남자의 15%, 전체 여자의 35%가 비만증으로 되어있다.

비만증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칼로리의 과다 섭취와 운동량 부족을 들고 있으나,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의 내분비질환, 약물, 그리고 유전질환에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

본란에서는 각종 내분비 질환에서 비만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비만

증의 원인과 증상들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비만증의 원인

영양의 과다섭취와 운동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제일 흔하다. 그러나 섭취열량이 많지 않고 운동도 적절한 조건에서 비만증이 오면 몇가지 중요한 내분비 질환을 의심하여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어린아이가 출생후부터 비만하고 키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을 경우에도 특별한 유전질환이나 내분비 질환을 의심하여 전문 의사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비만증의 증상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과체중으로 인한 활동력의 저하가 초래된다. **동작의 기민성과 순발력이 저하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슴이 뛰며, 지속적 운동이나 계단오르기가 힘이 들게 된다.** 비만증 자체가 폐기능을 약화시키고, 심장에 일을 더 많이 하게 하므로 이러한 증상이 오게되고, 따라서 활동량에 저하가 오게되어 비만증은 더 악화된다.

비만증에 당뇨병이나 고혈압등 심장질환이 동반된 경우, 비만증 자체보다도 심장질환이나 당뇨병에 따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대개는 식욕이 왕성하여 많이 먹고, 땀도 많이 흘려 물도 많이 먹게 되는데 이때 당뇨병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만한 사람이 운동중이나 식후에 흉통이

“
비만증에
당뇨병이나 고혈압등
심장질환이 동반된 경우,
비만증 자체보다도
심장질환이나
당뇨병에 따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

있으면 협심증을 의심해야 한다. 이상은 일 반적인 증상들이고 특이할 것이 없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각종 내분비 질환에 동반된 비만증이며, 이들은 반드시 원인 질환을 찾아 원인 치료를 해야한다. 이를 질환의 진단을 모두 이야기 할 수는 없으므로, 질환에 따른 증상들을 살펴봄으로써 전문의사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내분비성 비만증의 증상

1) 시상하부 증후군

대뇌의 시상하부라는 위치에 손상이 오거나 종양 또는 감염증이 있는 경우에 식욕조절 기능이 상실되어 음식물을 과다섭취 함으로서 비만증이 오는 경우이다. 이 경우 식욕이 왕성해지고, 종양인 경우 두통이 있을 수 있으며, 감염인 경우 열이 나고, 어느 경우 이든 심하면 의식장애가 올 수 있다.

2) 쿫싱씨 증후군

뇌하수체종양이나 부신종양에 의하여 코

티솔 호르몬이 과다분비되는 경우로서 얼굴 모양이 둥글게 되며 복부와 어깨에 지방침착이 되어 몸통은 둥글고 상대적으로 사지는 마르는 특징적인 비만이 온다. 얼굴피부가 붉으려하며 피부는 얇고 약하여 경미한 마찰에도 벗겨져 염증을 잘 일으키고, 고혈압과 당뇨병이 동반된다.

여성의 경우 멘스가 불규칙해 지다가 없어지며, 전해질 이상으로 전신무력감이 흔히 온다. 뇌하수체 종양인 경우, 종양의 크기에 따라 시야결손이 나타날 수 있으며, 두통도 올 수 있다.

3)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여 전반적인 대사 작용이 저하됨으로써 전신쇠약감,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추위를 잘 견디지 못하고, 변비가 올 수 있으며, 행동이 느려지고 말도 느리게 된다. 피부가 차갑고 거칠어지고, 맥박수도 느려진다. 눈두덩이와 얼굴에 부종이 오고, 머리카락이 거칠어지고 잘 빠지며, 기억력도 감퇴되고 소화불량, 식욕부진인데도 체중의 증가가 있다.

무표정하게 굳어진 얼굴모습이 특징적이어서 전문의사는 인상만 보고도 진단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4) 다낭성 난소 증후군

젊은 여성에서 비만증과 함께 멘스가 없거나 양이 적어지고 불규칙해지면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난소가 커져있고 여러개의 낭포를 형성하고 있어서 남성 호르몬 분비가

항진되어 있음으로서, 정상적인 성호르몬 조절이 되지않아 불임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증상으로는 멘스가 없거나 아주 적으면서 불규칙해지고, 체중이 증가되면서 남성화 증상이 수반된다. 즉 온몸에 털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굵어지기도 한다. 월경장애나, 무배란으로 인한 불임증으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털이 많으면서 체중이 증가되면, 일단 의심하고 정밀검진을 받아야한다.

5) 가성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칼슘 및 골 대사에 작용하는 부갑상선 호르몬이 호르몬 수용체의 이상으로 인하여 작용하지 못함으로서, 저칼슘혈증과 함께 여러 가지 특징적인 외견을 보인다. 즉 얼굴이 둥글고 키가 작으며, 비만하고, 목이 짧고 굵으며, 지능지수가 낮다. 백내장이나 녹내장도 잘 동반되고 치아가 약하여 칫과질환이 잘 오고, 대머리, 백납증이 동반되기도 하며, 곰팡이균의 감염증이 흔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부신기능 저하증이 흔히 동반된다.

성선기능의 부전으로 생식기 발육이 비정상이며 기능이 없는 경우도 있다.

6) 성선 기능 저하증

성선기능 저하증은 비만증에만 올 수 있는 특이질환이 아니며, 단일질환도 아니므로 여기에서 모두 언급할 수가 없다. 어릴때부터 비만증이 동반되고 성기발육이나 이차성징의 발현이 지연되는 경우 앞서 언급된 내



분비성 비만증은 물론 유전질환들을 의심하게 되며,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물론 성인에서도 비만증이 있는 경우 성호르몬의 변화와 함께 기능저하가 올 수 있으나 이들은 이차적이어서 비만증이 해소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성장속도의 지연이나 성기발달, 이차성징의 지연발현이 있으면 지체없이 전문의의 검진이 필요하다.**

7) 성장호르몬 결핍증

뇌하수체의 병변으로 성장호르몬 단독으로 또는 다른 호르몬과 같이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 역시 성장정지 또는 성장지연과 함께 비만증이 초래되는데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서는 조기에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성장호르몬 주사로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8) 인슐린 분비 종양

인슐린을 생성하여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에 종양이 생겨서, **인슐린이 과다분비**

됨으로서 자주 저혈당증에 빠지고 이를 극복하려고 음식을 섭취가 늘게되며, 섭취된 영양분은 쉽게 지방조직으로 전환되어 축적됨으로서 비만증이 초래된다. 증상은 자주 의식을 잃는 저혈당 증세가 특징적이다.

물론 쉽게 공복감을 느끼고 따라서 자주 음식을 먹게된다. 의식소실이 심하면, 기억력등 대뇌기능이 저하되며, 경련발작이 오기도 한다. 뇌신경 증상이 뚜렷하므로 신경정신과에서 수년동안 치료받아 오다가 내과에 의뢰되어 오는 경우가 많다. 종양의 수술적 제거로 완치되며, 약물요법을 하는 경우도 있다.

비만의 원인 분명히 알고 치료해야

이상 내분비성 비만증의 증상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그밖의 경우, 약물복용에 의한 것중 부신피질 호르몬제 복용시 증상은 앞서 언급된 웃싱씨 증후군과 같으므로 부연하지 않겠다.

그밖에 영양과다 섭취나 운동부족에 의한 경우에는 비만증과 함께 동반되는 일반적 증상, 즉 고혈압, 당뇨병, 폐기능저하, 심장기능저하 이외에는 특이한 증상이 없으므로 더 부연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강조할 것은, **비만증이 온 경우 단순한 비만증으로 생각하지 말고, 앞서 밝힌 여러가지 원인적 분류를 염두에 두고, 필요한 정밀검사를 받아, 치유가능한 특히 내분비성 비만증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이질환이 없는 사람도 비만증을 피하여야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❾